**[현대중공업]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인사노무**

**1. 자기소개(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25Line, 2,500 Byte 이내) (1250자)**

저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 셋을 고른다면,'긍정적인 네거티브', '실패는 이용하는 것', '자극은 인생의 연료' 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네거티브'란, 어떤 일이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되, 비판이란 개선의 전 단계로 존재할 때만이 의미를 가지며 결점과 개선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하나 무비판적으로 '당연히 그렇다' 혹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일견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자세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자세입니다.

'실패는 이용하는 것'이란, 먼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인정에서 출발하는 자세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실패에서 무엇을 얼마나 배워서, 그것을 이용하여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며',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극은 인생의 연료'란, 새로운 자극 없이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싫어하는 저 자신의 성격에 기인한 자세로서,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찾아보기를 멈추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취미의 영역에서부터 업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저는 '하던 대로 계속' 혹은 '변함없이 쭉'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여 시야를 넓히는 기쁨, 그리고 새로운 발상을 통한 개선책 고안에서 얻는 쾌감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결과가 성공이건 실패건 무언가를 배워서 활용하는' 선순환이 저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근본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 주요경력활동(세부전공 내용 중심으로 기술) (15Line, 1,500 Byte 이내) (750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일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분야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야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학부 수준에서의 특정 전공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공인 경제학 이외에 필수 선택하여야 하는 이중/연계전공으로 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세 가지 학과의 수업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법과 행정’ 연계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본 전공을 포함한 네 학과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현상 혹은 사건을 경제학적, 법학적, 정치학적인 시각을 동원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유연하고도 복합적인 사고방식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분석내용을 인식,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본전공에서도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학사, 경제사 등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익힐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였으며, 법학은 헌민형 3법 이외에도 민소 형소 지적재산권 등의 실용적 과목도 함께 수강하였습니다.

**3. 지원동기, 희망업무(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15Line, 1,500 Byte 이내) (750자)**

직업이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을 넘어, 일하는 이의 가치관에 부합하며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더욱 일에 매진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는 현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능력을 떠받치는 에너지/기계 분야에서 일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현대중공업은 그러한 저에게는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하며, 특히 인류의 영속에 기여하며 시대를 선행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그린에너지 사업 분야는 저의 개인적인 신념과도 일치하는 방향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학계열 전공자는 아니지만 조직이 윤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업무 중 제가 맡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특히 업무를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챙기고 신경 써야 조직과 개인이 Win-Win 할 수 있다는 저의 신념에 따라 인사노무 직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